

대광여고생들 '헌법' 매일 읽는다

1교시 전 자율학습 시간 '1일 헌법 1조문 읽기' 운동 올바른 공동체 의식 갖고 민주시민으로 성장 기회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공부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매일 읽는 고교생들이 있어 화제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대광여자고등학교는 지난 1일 헌법 읽기 선포식을 열고, '1일 헌법 1조문 읽기' 운동에 들어갔다.

학교는 지난 1월 31일 졸업생 395명에게 헌법 소책자를 선물한 데 이어 이날 전교생, 교직원 등 740명에게 헌법책을 나눠줬다. 헌법 읽기는 매일 1교시 시작 전 자율 학습시간을 이용한다. 담임 교사와 학생들이 헌법 1개 조문을 같이 읽고, 교사들이 헌법 해설책을 이용해 해당 조문을 3분 가량 쉽게 설명한다.

대광여고가 올해부터 시작한 헌법 읽기 운동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헌법 조문 전체를 읽어봄으로써 1987년 개헌된 우리 헌법 정신을 올바르게 알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고교 교육과정 가운데 통합사회, 정치와 법 과목에서 헌법을 일부 다루지만 헌법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판단 아래 전체 읽기에 도전했다.

우리 헌법은 전문과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



광주 대광여고 학생들이 지난 1일 학교에서 나눠준 헌법 소책자를 들어보고 있다. 대광여고는 이달 초부터 1교시 수업 전 담임교사와 함께 전체 학생들이 헌법 읽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까지 130개 조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됐다.

전문에 담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한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 등의 내용을 읽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바를 학생들이 몸소 배우게 될 것이라고 헌법교육 담당

정선렬 교사는 설명했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신체의 자유, 종교·학문·언론의 자유, 노동 3권으로 불리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교육을 받고 재판을 권리 등은 무엇이고, 이러한 권리가 왜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에 규정됐는지 등을 교사의 지도 아래 익히게 된다.

대광여고 유양식 교장은 "헌법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 국가 기관의 권한 행사 방

법 등 나라의 기본 틀을 짜 놓은 우리나라 최고법으로 민주 시민교육에 있어 필수적인 교육"이라며 "학생들이 헌법 읽기를 통해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갖고 현실에 적극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광여고는 현행 헌법 읽기를 마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유엔인권선언문 읽기에 도전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조선대, 주요국가 학생·토픽우수자 초청연수 위탁 기관

조선대학교, '주요국가 학생 및 토픽우수자 초청연수 위탁 기관' 선정

조선대학교(총장직무대리 홍성금)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주요 국가 학생 및 토픽우수자 초청연수 위탁 기관으로 선정됐다.

2019 주요국가 학생 및 토픽우수자 초청연수는 토픽우수 외국인 대학생과 동남아, 남미, 유럽, 캐나다, 중앙아시아 지역 등 한국어과정이 개설된 교외의 우수 학생을 초청하는 연수로, 유적지 탐방과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고등학교 및 대학교 견학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조선대는 국제 교류 실적과 교육 여건 및 환경 부문 등 모든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으며, 1억 2300여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조선대는 특히 체계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연수기관 중심이 아닌 연수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는 오는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주요 국가 고교생 30명, 토픽우수자 15명 등 총 45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 문화·경제 강의, 대학 및 문화유적지 탐방 등의 체험과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호텔경영학과 4명 '크루즈 TC 양성과정' 선발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학과장 이희승) 4학년 학생 4명이 크루즈 해의 송출 국내 1위 기업인 CCIKorea(Cruise Club International Korea)에서 실시하는 크루즈 투어컨덕터(TC) 양성 운영 과정에 선발됐다.

16일 호남대 호텔경영학과에 따르면 4학년 정경인·이아연·정호준·김진영씨 등 4명이 서류 전형 및 면접을 통과해 지난 9일 1차 교육을 받은 데 이어, 오는 18일 최종 교육 및 리허설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선발된 4명은 오는 21일 강원도 속초

를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일본 사카이미나토를 경유해 25일 부산으로 귀항 예정인 초대형 크루즈인 네오로만티카(Neo Romantica)호에 탑승해 크루즈 승선객들을 대상으로 의전,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수행 평가에 따라 향후 채용까지 이어지게 된다.

크루즈산업의 이해를 위해 기항지 정박시와 휴무 시간에는 승선객들의 입장에서 활동도 하게 되며, 소정의 초기 교육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제반 비용은 CCIK가 전부 지원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WISET 전남지역목포대사업단 'SW 전문가 양성교육'

국립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 WISET 전남지역목포대사업단(단장 박복희)은 최근 11일간 목포대 교수회관 교육세미나실에서 공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ICT 역량 강화를 위한 'SW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이공계 여대생들의 ICT 역량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구조, 소프트웨어 공학과 정)으로 운영했으며, (주)국제 신미나

강사를 초청해 개념 확립 및 ICT 분야 실전 교육 중심으로 운영됐다.

WISET 전남지역목포대사업단은 이공계 여대생들이 SW 역량 강화 및 실무 능력을 향상 시키고 전공 분야로 사회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계 연계 특강을 실시했으며, IT 직무에 좀 더 접근하기 쉽도록 SW 개발 강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고3 수험생 초청 진로·진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동신대학교는 오는 6월까지 광주와 전남·북 지역 고등학교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11일 나주 광남고와 12일 광주 광덕고를 시작으로 오는 6월 7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 14개 고등학교, 전북지역 1개 고등학교 등 3학년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초청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캠퍼스 투어를 통해 학생들에게 대학 곳곳을 소개하고 2020학년도 입학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미니 입학설명회'를 갖

는다. 미니 입학설명회가 끝나면 학생들은 자신이 미리 신청한 학과로 이동해 전공 학과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세울 수 있도록 체험 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정영욱 동신대 입학처장은 "지역 고등학교 3학년과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교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500명 이상 동의 교육 관련 청원 장석웅 교육감, 14일 이내 답한다

'도민청원마당' 제도 시행

장석웅(사진) 전남도교육감이 학생 등 도민 500명 이상이 동의한 전남교육 관련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하기로 했다.

1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남 교육현안에 대해 학생 등 도민 500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장 교육감이 직접 답변하는 '도민청원마당' 제도를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민과 교육감이 직접 소통하면서 교육현안을 함께 해결해가는 공간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도민청원마당은 전남 교육현안·정책과 관련해 30일 동안 전남도민(학생 포함)



500명 이상이 공감한 청원에 대해 교육감이 14일 이내 답한다.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ne.go.kr)에 개설되며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영리목적, 욕설 등이 포함된 청원은 적정성을 검토해 제외된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정당한 교육자치 실현은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이 정책결정의 중심에 서 있을 때 가능하다"며 "도민청원마당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제주교육청 5·18과 4·3 공동포럼



5·18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을 전국화하기 위한 민주화 교육포럼이 열렸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오후 제주도 교육청에서 제주도교육청과 민주화 교육 관련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제주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는 이석문 제주교육감과 장휘국 광주교육감, 시·도교육청 관계자, 제주 4·3평화재단과 5·18기념재

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4·3과 5·18, 평화·인권교육으로 전국을 잇다'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4·3과 5·18 민주화 교육 전국화 현황과 제주-광주 간 연계 협력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